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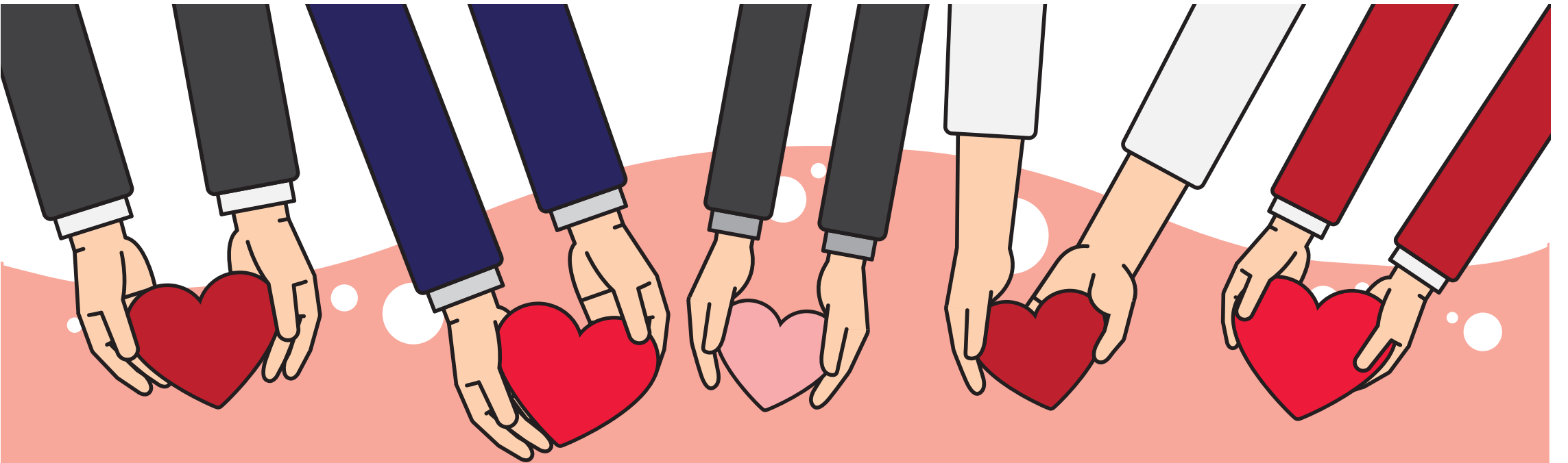


[산업] 한화솔루션 태양광·유화·첨단소재 결합 '18兆-1.6兆' 솔루션 06



Life

[라이프] 세계로 뻗어가는 하이트진로 필리핀에 법인



소외이웃·독립유공자 지원... 대부업체 모여 커지는 나눔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대부금융협회

800만 서민을 위한 금융기관으로 2009년 설립된 한국대부금융협회의 뿌리는 '서민'이다. 불법사금융 퇴출을 위한 소비자보호 운동과 더불어 다양한 취약 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협회가 적극 나서는 이유다. 다른 금융권이 미처 손길을 뻗치지 못하는 곳까지 돌보며 진정한 서민금융기관으로 성장하고 있는 협회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 취약계층 살리는 장기채무 소각

협회는 한계채무자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효완성채권을 소각하고 있다.

지난 2018년 협회는 장기연체채권 소각에 참여의사를 밝힌 26개 대부업체와 함께 약 2만명, 총 2473억원 규모의 장기채권을 소각(빚 탕감)했다. 지난 2017년 말 약 26만명(2조8000억원 규모)의 시효완성채권을 자율 소각한 지 1년 만에 이뤄진 2차 소각 행사다.

협회는 해당 연체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했고, 같은 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채권 일체를 소각 처리했다.

협회가 소각한 채권은 해당 대부업체가 장기간 연체돼 회수가 어렵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한 채권들이다. 구체적으로 ▲시효완성채권(1만5203명) ▲과산·면책채권(2315명) ▲사망채권(1987명) ▲기타(404명)에 해당됐다.

◆ 순국선열 기리는 송고한 나눔

협회는 독립유공자 및 참전용사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적이다.

협회와 조이크레디트대부·에이원대부캐피탈·바로크레디트대부 등 12개 회원사는 삼일절 100주년을 맞은 지난해 2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단체인 '광복회'에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유족들을 돕는데 사용해 달라며 3000만원을 기부했다. 광복회는 이번 기부금으로 전국 지부에서 선정된 저소득층 독립유공자 유족들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했다.

한편 한국대부금융협회와 회원사들은 2016년부터 매년 광복회에 독립유공자 유족 돕기 성금을 기부하고 있다.

임 회장은 "지난해 100주년을 맞았던 3·1



- ①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오른쪽에서 네번째)과 주한곤 에이원대부캐피탈 대표(오른쪽에서 세번째)는 지난해 6월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서울 강남 본원을 찾아 박희모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회장(왼쪽에서 네번째)에게 성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 ②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왼쪽 첫번째)과 12개 회원사들은 지난해 9월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동방사회복지회를 찾아 소외 아동 복지사업에 써달라며 3000만원을 기부했다.
- ③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왼쪽에서 세번째)과 주한곤 에이원대부캐피탈 대표(왼쪽에서 첫번째)·김충호 바로크레디트대부 대표(왼쪽에서 두번째) 등 11개 회원사들은 지난해 11월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대한적십자사 서울 특별시지사를 찾아 독거 노인 등 재난 취약계층 돕기에 써달라며 4000만원을 기부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한계채무자 정상적 경제활동 위해 장기연체채권 총 2473억 규모 소각

독립유공자 단체인 '광복회'에 기부 호국보훈의 달 맞아 유공자 지원도

대부업체 모여 산불 이재민 도와 겨울철 소외계층에 방한물품 전달

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을 기념해 조국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 선열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그 유족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는 지난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 참전 유공자를 지원하는 행사도 가졌다.

협회와 에이원대부캐피탈·넥스젠파이낸스대부·듀오캐피탈대부·바로크레디트대부 등 12개 회원사들은 6.25 전쟁 참전 유공자 단체인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에 3000만원을 기부했다.

6·25 참전유공자회 또한 협회와 회원사가 2016년부터 매년 성금을 기부해오고 있는 단체다. 6·25 참전유공자회는 이번 기부금을 통해 전국에서 선정된 참전유공자

150여명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했다.

임 회장은 "국가 수호에 헌신했던 많은 고령의 참전유공자들이 생계 유지와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성금을 마련했다"며 "협회는 수많은 참전 유공자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그분들이 보다 안락하게 살아가는데 성금이 도움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소외이웃 위한 따뜻한 나눔 행진

산불과 추위 등 피할 수 없는 자연재난에 민감한 취약계층을 돕는 지원도 빼놓지 않고 있다.

협회는 지난해 4월 티포스코퍼레이션대부·에이원대부캐피탈·바로크레디트대부·아이엔비자산관리대부·웰컴크레디라인대부·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 등 15개 대부업체와 함께 큰 산불피해를 겪었던 강원도 일대의 피해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재해성금 20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소외 계층의 월동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에이원대부캐피탈·아이엔비자산관리대부·나이스대부 등 11개 대부업체와 함께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를 찾아 기부금 4000만원을 전달했다.

협회가 후원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의 '에너지세이브 캠페인'은 기후재난에 민감한 취약계층이 매년 폭염기와 혹한기를 건강하게 날 수 있도록 10만원 상당의 방열·방한용품들로 구성된 에너지세이브박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세이브박스는 본격적인 동절기를 앞둔 저소득층이 계절적 환경에 특히 취약한 점을 고려해, 전기료 부담을 한층 덜 수 있도록 전력사용을 대체할 수 있는 방한용품으로 구성된다.

임 회장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매년 회원사들과 마음을 모으고 있다"며, "정성이 담긴 에너지 세이브박스가 홀로 계시는 어르신 및 미혼노 가정 등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대부금융협회와 회원사는 2012년부터 매년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독거노인을 돕기 위한 김장김치·겨울이불·운열매트 등 방한 물품 지원 행사를 펼쳐오고 있다.

/홍민영 기자 hong93@metroseoul.co.kr